

# 김종삼 시의 현실인식에 대한 인지시학적 연구

신현미(전북대)

## 〈목 차〉

- |                                  |                                |
|----------------------------------|--------------------------------|
| 1. 서론                            | 3. 비인간적 현실에 대한 휴머니즘의<br>역설적 제시 |
| 2. 비극적 현실에 대한 자아의 소외의식과<br>주변지향성 | 4. 결론                          |

## 1. 서론

김종삼 시인은 1921년 황해도 은율에서 태어나 1953년 잡지 『신세계』에 시 「園丁」을 발표하면서 시작활동을 하였다. 1984년 작고할 때까지 유고작을 포함하여 216편의 시와 5편의 산문을 남겼다. 30여 년의 시력을 고려한다면 그리 많지 않은 작품이지만 그의 시가 지닌 의미의 층위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김종삼의 시에 대한 연구도 그간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고 어느 정도 연구가 축적된 것으로 보인다. 시의 주제와 관련된 의식적 측면은 물론이고 수사방식, 언술구조, 화자유형, 미학원리 등의 형식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본고는 선행 연구 결과를 수렴하되 김종삼의 시를 인지시학의 방법으로 접

근하여 시의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 원용하고 있는 인지시학은 인지과학, 특히 인지언어학을 문학 연구에 도입한 연구 방법론이다. 인지시학은 문학 연구의 철학적 측면과 실용적 측면을 함께 제시하고 인지적 사고로 전환하는 실제적인 방식과 유용한 개념을 제공한다.

김중삼 시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향이 의미 중심과 미적 성취 기법으로 분리되어 있었다면 인지시학을 통한 연구는 이를 통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인지시학은 시에 쓰인 언어 형식과 시의 의미형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인지시학은 문학 작품이 가지는 관념과 의미 구조가 언어를 통해 실재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리한 방법을 제시한다. 나아가 과학적 철학 관점에서 문학비평이론의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분석 방법을 문학 내부가 아니라 언어학과 심리학으로부터 이끌어 내어 분석의 논리적 순환을 극복하고 있다.<sup>1)</sup>

김중삼 시에 나타난 자아의 현실인식에 대하여 기존 논의에서는 시의 자아를 현실세계와 불화를 겪는 존재로 여겨왔다. 그래서 현실을 비극적으로 인식하고 세계에서 소외된 것으로 보았다. 시에 나타난 환상성 또한 그러한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과정은 대개 시의 형식구조의 분석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하우스만의 시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 작품의 미학적 완성도가 내용과 형식의 절묘한 조화와 그 확장을 통해 성취된다는 점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김중삼의 시는 시정신과 함께 시의 형식적 기법이 매우 독특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시도하려는 인지시학적 분석은 김중삼 시가 성취하고 있는 언어미학적 측면과 시정신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김중삼 시에 나타난 현실인식을 고찰하고 그에 대응하는 시적 자아의 의식을 밝히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현실인식은 기존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김중삼 시인의 전기적 사실과 맞닿은 것이다. 김중삼 시인은 이북에서 태어나 일본 유학 중에 부두 노동자로 전전하며 살았고 해방 후 월남하여 주로 서울에서 생활했다. 안정된 직장

1) 피터 스톡웰, 이정화·서소아 역,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7~8면 참조.

을 가졌지만, 술과 음악에 심취해 기인적 면모로 살아온 점은 매우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는 디아스포라적 삶의 연속이었고 그에 따른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하여 방황의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서, 가족도 있고 나라도 있었지만, 마음의 공간은 늘 비어’<sup>2)</sup>있었던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김종삼 시에 나타난 현실을 비극적인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자아의 의식을 인지시학의 개념은유와 도식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 비인간적인 현실에 대한 시적 자아의 인식이 발현되는 과정을 인지시학의 전경/배경 개념으로 분석할 것이다.

## 2. 비극적 현실에 대한 자아의 소외의식과 주변지향성

김종삼의 시에는 ‘인생’에 관한 사유를 ‘길’의 개념 영역에서 구조화한 은유를 흔히 찾을 수 있다. 즉 [인생은 길]이라는 개념은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적 사유를 창출한다. 그리고 이를 확장하여 다층적인 구조적 은유를 생산하기도 하고 이에 따라 시의 의미가 다양하게 드러난다. 이 때의 구조적 은유는 길도식의 영상도식을 함께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길’이 갖는 물리적 의미와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시에 내포된 관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지적 과정을 통하여 시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인지시학 연구의 메커니즘이다.<sup>3)</sup>

苹果 나무 소독이 있어  
모기 새끼가 드물다는 몇 날 후인  
어느 날이 되었다.

며칠 만에 한 번만이라도 어진  
말씀씨였던 그인데

2) 서범석, 『김종삼 시의 건너뛰고 빈자리』, 『비평의 빈자리와 존재현실』, 박문사, 2013, 156~157면.

3) 개념은유와 영상도식에 관한 논의는 양병호, 『한국 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5, 41~50면을 참조함.

오늘은 몇 번째나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길을 기어이 가리켜 주고야 마는 것이다.

아직 이쪽에는 열리지 않는 果樹밭  
사이인  
수무나무 가지 울타리 길줄기를 벗어 나  
그이가 말한 대로 일만가를 더 갔다.

구름 덩어리 얇은 언저리  
植物이 풍기어 오는  
유리 溫室이 있는  
언덕쪽을 향하여 갔다.

안쪽과 周圍라면 아무런  
기척이 없고 無邊하였다.  
안쪽 흙 바닥에는  
떡갈나무 잎사귀들의 언저리와 뿌룽드 빛깔의 果實들이 평탄하게 가득 차 있었다.

몇 개째를 집어 보아도 놓였던 자리가  
썩어 있지 않으면 벌레가 먹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집기만 하면 썩어 갔다.

거기를 지킨다는 사람이 들어와  
내가 하려던 말을 빼앗듯이 말했다.

당신 아닌 사람이 집으면 그럴 리가 없다고<sup>4)</sup>.

-「園丁」

이 시는 김종삼 시인이 발표한 첫 번째 작품으로서 그의 초기 시세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로 여겨져 왔다. 기존 연구자들은 이 시를 통하여 시인의 “비극적 세계인식”<sup>4)</sup>과 “좌절과 고독”<sup>5)</sup>으로 점철되는 “자기 운명에 대

4) 김현, 『김종삼을 찾아서』,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238면.

한 무서운 예감 혹은 통찰”<sup>6)</sup>을 읽어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수렴하되, 이 시의 중심 시어인 ‘길’을 통해 구조적 은유를 살피고 의미를 도출하려 한다.

길은 인간이 걸어가는 자리의 연속이다. 출발/시작점과 도착/끝점이 있고 길을 가는 도중에 안내자나 장애물을 만나기도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탄생과 죽음이 있고 부모와 동반자가 있으며 때로는 고난을 마주하기도 한다. 신체적 경험을 통하여 인지한 이러한 유사성을 부각하여 [인생은 길]이라는 기본 개념은유가 생성된다. 이 시에는 이를 기본으로 삼아 은유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과수원은 시의 배경이다. 과수원에는 ‘이쪽’과 ‘수무나무 가시 울타리 길줄기’와 ‘언덕쪽’, ‘안쪽’ 등 길의 여러 갈래가 있다. 과수원을 지키는 사람인 ‘원정’은 화자에게 길을 인도한다. 화자의 입장에서 안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정에 의해 결정된 길을 한사코 가는 상황이다. 과수원의 과실은 원정이 인도한 곳에 ‘평탄하게’ 열려 있다. 그런데 화자가 집어들린 과실과 그 자리는 썩어 있다. 이 때 원정과 화자가 이구동성으로 화자의 문제를 언급한다. 이것이 시의 표층적 내용이면서 근원영역이다. 이를 인생 또는 삶이라는 목표영역에 사상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인생은 길이다]라는 개념은유를 통한 은유구조〉

근원영역	목표영역
과수원	삶의 시공간적 배경
과수원 길(갈래)	삶의 여정(여러 형태)
원정	삶의 지침을 알려주는 이
과실	풍요롭고 평탄한 삶의 도달점

5) 이경수, 『부정의 시학』,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262면.

6) 강석경, 『문명의 배에서 침몰하는 토끼』,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284면.

화자는 삶의 여정에서 삶을 풍요롭고 평탄하게 꾸릴 수 있는 여러 지침을 마주한다. 1연에서 ‘소독’된 공간, 3연의 ‘가시 울타리’를 벗어난 공간, 4연의 ‘우리 온실’이 있는 공간, 5연의 ‘기척’없고 ‘무변’한, 황금빛 과실이 가득찬 공간이 그것이다. 이때 이 시어들은 ‘가족적 유사성’<sup>7)</sup>에 의해 의미 계열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화자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제시해준 삶의 모습이다. 화자는 이를 거부한다. 풍요롭고 평탄해 보이는 삶이란 화자의 기준에서는 썩은 과실과 다르지 않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삶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화자는 아무리 풍요와 평탄이 보장되어 있다하더라도 ‘온실’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소독되지 않아 모기가 많더라도 화자는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선택은 원정 같은 범상한 사람에게서는 실패한 인생으로 비추어질 것이다. 특히 마지막 행 ‘당신 아닌 사람이 집으면 그럴 리가 없다’에서 원정과 화자가 가지는 관점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원정으로서, 앞서 말한 것처럼 실패한 화자의 삶을 말할 것이고 화자로서도 자신의 삶이 다른 보통의 삶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 시의 화자 즉 시적 자아가 현실을 비극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이든 아니든 간에, 보통사람들의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로써 이 시는 타인이 제시한 삶과 자신이 선택한 또는 선택할 삶의 간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자들이 말한 ‘세계와 자아의 불화’라는 것은 이러한 간극에서 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자아는 현실세계에 대해 소외의식을 느끼고 자신을 고독한 존재로 표현한다.

나는 누구나 한번 가는 길을  
어슬렁어슬렁 가고 있었다

세상에 나오지 않은  
樂器를 가진 아이와  
손 쥐고 있었다

7) 양병호, 앞의 책, 27면 참조.

너무 조용하다.

-「風景」부분

이 시 역시 [인생은 길]이라는 기본 개념은유를 통해 화자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화자의 인생은 타인과는 다르게 ‘어슬렁’거리는 삶이다. ‘어슬렁어슬렁’이 주는 느리고 게으른 부정적인 이미지는 보통사람의 시선임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평가이다. 즉 화자는 일반적인 현실세계에 반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다.

한편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악기를 가진 아이’에서 ‘나오지’의 의미는 ‘태어나지’와 ‘드러나지’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로 이해한다면 현실 감각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시적 상황이 구현된다. 이는 기존 연구자들이 말한 ‘환상성’의 근거가 된다. 이것은 결국 화자가 현실 세계와 불화를 겪고 환상적 세계에서 불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후자인 ‘드러나지’로 이해하면 시적 상황의 환상성은 소거된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현실에 대한 자아의 소외의식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시는 화자가 현실과 유리된 ‘아이’와 손을 쥐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미 타인의 삶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풍경’이라는 객관적 상황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소외의식을 지닌 화자의 세상에서 화자가 택한 삶은 ‘조용’한 삶, 즉 고독한 것으로 표상된다.

방대한

공해 속을 걷자

술 없는

황야를 다시 걷자

-「걷자」

이 시에는 [인생은 길] 은유가 구조적으로 확장된 [사는 것은 걷는 것]이라

는 개념은유를 기반으로 시적의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은유구조를 통해 보면 인생은 걷는다는 것이고, 걷는 다는 것 자체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즉 화자는 ‘걷자’라는 외침을 통하여 삶의 의지, 생에 대한 파토스를 피력한다.

그러나 자신이 걸어야하는 곳은 ‘방대한 공해 속’이나 ‘황야’라는 부정적 현실이다. 표면적으로는 삶을 지속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결국 화자는 현실에서 소외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김종삼 시에 나타난 이러한 소외의식은 자아가 주변을 지향하는 것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주변지향성은 특히 공간에 대한 지향성 바탕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김종삼 시인의 공간 지향성은 중심과 주변의 개념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여러 시편에서 구석, 모퉁이, 기슭, 가장자리, 한켠 등의 시어가 전체 맥락에서 주의를 끄는 공간이 되고 있다. 즉 중심과 주변의 경계에서 시인은 주변에 머무는 것으로 간주된다. 김종삼 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지향적 특성은 시인의 개념체계에서 배태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김종삼 시 세계의 주변지향성을 읽어낼 수 있다.

인지시학의 지향적 은유는 한 개념을 다른 개념에 사상하는 구조적 은유와 달리 여러 개념 체계들이 상호 관련되어 전체 체계를 구조화하는 것이다.<sup>8)</sup> 지향적 은유의 대부분은 위-아래, 안-밖, 접촉-분리, 깊음-얕음, 중심-주변 등의 공간적 지향성과 관련이 있다.<sup>9)</sup> 이러한 은유적 지향성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적·문화적 경험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시의 지향적 은유를 분석하면 시인의 공간인식과 현실세계인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理想은 어느 寒村 驛 같다.

(중략)

가보진 못했던 다 破한 어느 시골 장거리의

저녁녘 같다.

나의 戀人은 다 破한 시골

장거리의 골목 안 한 귀퉁이 같다.

-「나」 부분

8) 양병호, 앞의 책, 46~47면.

9) 조지레이코프·마크존슨, 노양진·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박이정, 2006, 37면.

이 시에 등장하는 공간은 ‘한촌’의 ‘역’, ‘시골 장거리’, ‘골목 안 한 귀퉁이’이다. 화자의 공간 지향점은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주변인 셈이다. 그런데 이 공간들은 목표영역인 화자의 ‘이상’과 ‘연인’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들이다. 즉 공간을 제시하며 화자의 자기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이 시의 중요한 의미이다.

이 시는 『나의 本籍』과 유사하게 자아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있다. 『나의 本籍』은 다양한 물리적 근원영역을 동원하여 자아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는 시이다. 이 때 화자 자신을 주변부에 놓인 존재로 제시하는 점 또한 위 시와 동일하다. 그러나 『나의 本籍』의 주변부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 존재가치가 부여된 것으로 등장한다. 즉 ‘나의 본적은 인류의 쟁신이고 맨발’인 것이다. 반면에 이 시의 화자는 추운 시골의 역처럼 인적이 드문 공간, 어두운 공간, 골목에서도 한 귀퉁이라는 주변부에서도 가장 구석진 공간을 지향하는 인지 특성을 보인다.

주변부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소외의식을 지닌 자아가 현실과 유리된 주변공간에 자리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점은 공통된 특성이다. 또한 이러한 주변지향성은 자아를 고독한 존재로 형상화하여 드러내기도 한다.

또 언제 올지 모르는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새 한 마리가 가까이 와 지저귀고 있다.  
 이 세상에선 들을 수 없는  
 고운 소리가  
 천체에 반짝이곤 한다.  
 나는 인왕산 한 기슭  
 낚작집에 사는 산사람이다.

-「새」

이 시에서 화자는 중심에서 떨어진 ‘인왕산 기슭’이라는 주변부에 놓여 있다. 즉 [중심-주변]의 지향적 은유를 중심으로 의미가 생성된다. 중심이 사상된 ‘이 세상’은 일반적 현실세계이다. 반면 주변이 사상되어 있는 화자의 공간

은 ‘납작집’ 즉 현실과 유리된 세계이다. 이 시에서도 현실은 비극적으로 인식된다. ‘천체’를 반짝이게 하는 새의 ‘고운 소리’는 이 세계에서는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변부인 산기슭의 ‘납작집’은 천상의 세계라는 가치가 부여된다. 그래서 현실세계에서는 얻기 힘든 경험을 통해 주변부의 삶을 미화하고 있다. 주변부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는 주변이 아닌 현실공간의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까지 김종삼의 시에 나타난 현실이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인식을 지닌 자아가 현실에서 소외의식을 갖게 되고, 주변을 지향함으로써 현실에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3. 비인간적 현실에 대한 휴머니즘의 역설적 제시

김종삼 시에는 어린아이나 노인 등의 약자를 소재로 하여 그들의 삶을 애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 많이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약자 이미지에 주목하여 시적 자아의 현실인식과 이에 대한 시적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인지시학의 전경/배경과 프로파일링 개념을 방법론으로 삼아, 시의 언어 형식으로부터 시 정신이 형성되는 과정을 드러낼 것이다.

인지언어학 특히 인지문법론에서는 개념 체계와 언어문법 체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언어체계에서의 운용법칙은 개념체계의 운용법칙과 동일하다.<sup>10)</sup> 인지문법에서는 ‘프로파일링’<sup>11)</s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 심리작용을 통해 배경으로부터 전경을 부각하고 세계를 조직한다. 또 언어학적으로 전경을 ‘탄도체(TR)’로, 배경을 ‘지표(LM)’로 표현하는데, 이는 개념의 차원과 언어학의 차원이 동일한 프로파일링 과정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sup>12)</sup> 그래서 문장의 첫 번째에 등장하는 명사구는 개념적으로

10) Joanna Gavins · Gerard Steen(EDT), 『*Cognitive Poetics in Practice*』, Routledge, 2004, 57면.

11) 프로파일링은 윤곽(전경)/마당(배경) 조직에 뿌리를 두고 이루어진다. 이 심리 작용은 상황의 어떤 부분이 나머지 부분들보다 더 현저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비대칭성에 구조를 부여하는 것이다. 김종도, 『인지문법의 디딤돌』, 박이정, 2002, 130면 참조.

12) Joanna Gavins · Gerard Steen(EDT), 위의 책, 57면 참조.

먼저 프로파일된 것이다. 한편 의미 측면에서 동작의 주체는 문장의 주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동작의 주체는 개념적으로 전경이 된다.

1947년 봄

深夜

黃海道 海州의 바다

以南과 以北의 境界線 용당浦

사공은 조심 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嬰兒를 삼킨 곳.

스무 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水深을 모른다.

—「民間人」

이 시가 민족의 분단, 즉 38선으로 남북이 갈린 상황의 비극을 보여준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시의 표면에서 서술되는 것은 시간, 공간, 한 사건뿐이다. 먼저 1연에서 제시한 것은 명사형으로 끝맺는 시간과 공간이다. 시간을 제시한 순서대로 보면 '1947년—봄—심야'인데 한 단계씩 구체화되고 있다. 이를 전경/배경의 개념으로 보면, 연도를 배경으로 '1947년'이 전경이 되다가 1947년을 배경으로 다시 '봄'이 전경이 되고 봄을 배경으로 '심야'가 전경이 되는 과정이 인지된다. 전경과 배경이 연쇄적으로 전복되며 '심야'가 최종적으로 프로파일되도록 시간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첫 어절로 제시된 1947이라는 숫자는 봄이나 심야보다 개념적으로 더 우세하게 지각된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단순한 연도의 개념이 아니라 민족의 중요한 역사로 서의 시간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947년' 가장 큰 단위의 시간 배경으로 방치(neglect)<sup>13)</sup>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법적 배열에서 가장 먼저 놓여 있는 점, 우리의 역사적 스키마를 즉각적으로 불러온다는 점에 의해 유효한 전경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13) Peter Stockwell, 『Miltonic texture and the feeling of reading』, Elena Semino · Jonathan Culpeper(EDT), 『Cognitive Stylistics: Language and Cognition in Text Analysis』, John Benjamins, 2002, 74면.

Joanna Gavins · Gerard Steen(EDT), 앞의 책, 16면.

피터 스톡웰, 이정화 · 서소아 역, 앞의 책, 43면 참조.

공간에 대한 진술 방식도 마찬가지로이다. 황해도—해주—바다—용당포의 순서로 공간이 구체화된다. 구체화의 측면에서 보면 ‘용당포’가 프로파일되도록 시의 공간 구조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황해도’가 해주나 바다보다 더 우세하게 지각된다. 그리고 ‘이북’, ‘이남’, ‘경계선’의 시어가 수식어로 등장하면서 ‘황해도’와 함께 역사적 공간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 이는 앞서 말한 1947년이라는 시간과 더불어 역사와 민족의 문제를 개념적인 전경으로 활성화시킨다. 구체화된 시간과 공간은 ‘심야’와 ‘용당포’이지만 이 시어들보다 문법적으로, 동시에 개념적으로 더 우세하게 지각되는 시어는 ‘1947년 황해도’인 것이다. 요컨대 시의 표면에는 ‘심야’에 ‘용당포’에 ‘영아’를 유기한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배경삼아 시인이 말하고자하는 것은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무엇이다. 시의 이러한 기법적 전략은 2연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된다.

2연은 서술형의 통사구조를 갖추고 있다. 첫 문장은 심야에 용당포를 건넌다는 사건이 제시된다. 이 문장에서 동작의 주체인 ‘사공’은 전경의 자격을 갖추어 탄도체로 기능한다. ‘노를 저어가’는 행위는 개념적 의미 구성에서 도강이라는 사건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조심 조심’이라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사건의 은밀함을 보강하고 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제시된다. 한 영아가 울음을 터뜨린 사건과 그 영아를 ‘곶’으로 표현된 용당포가 삼킨 사건이다. 이 때 ‘삼키다’는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키다’의 주체는 ‘용당포’ 즉 바다인데 사람이 아닌 것을 탄도체로 설정하여 실제 영아를 던졌을 사람의 행위를 표면에 드러내지 않는 기능을 한다. 얼핏 개연성 없는 두 사건은 1연의 시공간적 배경과 엮이면서 역사적 사건으로 확장되어 의미를 형성한다. 물론 피붙이를 내던지면서까지 은밀하고 잔인하고 위협하게 진행된 월남이라는 서사는 시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시간(‘심야’), 공간(‘용당포’), 사건(도강)의 이면에 개념화된 것이다.

이 시에서 시간과 공간과 사건을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배치한 기법은 그 이면에 숨겨진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민족사의 비극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비극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냉담하게 전개되는 방식이 시의 비극적 현실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절제의 미덕’<sup>14)</sup>이라고 평가되는 김종삼 시의 이러한 형상화 방식은 이 시의 제목에도

드러난다. 역사적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민간인’을 전경으로 내세우면서 이와 대립되는 군인, 정치인, 나아가 이데올로기의 의미를 활성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의 마지막 행을 보면, 시의 시간 배경을 20년 이후로 옮겨 놓고 있다. 그러면서 용당포의 수심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건을 제시한다. 이 역시 표면적으로는 개연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스무 몇 해’와 ‘수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면에 민족의 비극적 사건이 현재진행형임을 개념적으로 지각하게 한다. 여기에서는 이제 스무 몇 해 전의 영아유기 사건이 비인간적인 현실을 대변하는 일종의 상징이 된다. 지금도 그 때처럼 삶을 위해 다른 삶을 파괴하는 비인간적인 현실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이미 의미가 없다. 다만 이러한 시적 제시를 통해 시적 자아가 희구하는 것이 휴머니즘의 회복이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물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墨畫」

「墨畫」는 김종삼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이 시에 드러난 현실이 「민간인」처럼 비인간적인 현실은 아니다. 그러나 고되고 힘든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로 휴머니즘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또한 절제된 시어를 배치하며 이면에 있는 시의 의미를 대비적으로 강조하는 기법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 시의 첫 문장에 등장하여 먼저 전경이 되는 것은 ‘물먹는 소’이다. 왜냐 하면 통사구조에서 ‘할머니’보다 앞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인간 중심의 사고

14) 김현, 앞의 논문, 237면.

에서 보면 ‘할머니’는 동작의 주체이고 개념적으로 전경이어야 하지만 시에서는 문법적으로 배경이 된다. 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에서 의미상 주체는 ‘할머니’인데 문장표현에서는 ‘손’이 주어로 되어 있다. “할머니가 손을 얹었다”라고 하지 않고 굳이 ‘손’을 문법적 전경 즉 탄도체로 부각하면서 ‘할머니’를 인지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얹혀졌다’는 표현에서도 전경으로 부각되는 것은 ‘소의 목덜미’이다. 그래서 첫 문장은 ‘할머니’에 비해 ‘물먹는 소’가 문법적·개념적 전경이 된다. 이것이 이 시에서 중요한 이유는 할머니와 소가 지배와 피지배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시의 두 번째 문장인 3행과 4행에는 ‘할머니’가 ‘소’에게 건네는 발화 내용이 전개된다. 여기서 ‘할머니’는 화자로서 전경이 되고 ‘소’는 청자로서 배경이 되지만 문장에서 부각되는 것은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하는 발화의 내용이다. 즉 전경과 배경 모두가 문법적으로는 부각되어 있지 않다. 한편 시간 배경인 ‘하루’는 관형사 ‘이’와 조사 ‘도’에 의해 전경으로 부각된다. 그래서 단순히 나열되는 여러 날의 하루가 아닌 매일 매일이 중요한 시간으로 작용한다. 여기에는 하루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고단한 삶이 투영되어 있다. 할머니의 ‘손’이나 ‘물먹는 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에 등장하는 삶은 노동으로 점철된 삶이다. 이를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으로 놓고 의미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행에서 시어 ‘함께’가 행의 첫머리에 놓이면서 새로운 전경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소외계층으로서의 할머니가 소가 ‘함께’ 조응하는 삶이 이 시의 의미가 된다.

시의 세 번째 문장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와 네 번째 문장 ‘서로 적막하다고’는 통사구조가 유사하다. 또 전경으로 부각되는 시어도 ‘서로’로 동일하다. 특히 세 번째 문장은 ‘발잔등’이 주어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전경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서로’를 행의 첫머리에 위치시키고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서로’에 해당하는 의미 주체인 ‘할머니’와 ‘소’를 활성화시킨다. 특히 ‘서로’가 쓰인 시구에서는 ‘소’를 향한 ‘할머니’의 발화가 ‘소’와 ‘할머니’의 대화로 바뀌는데 첫 문장과 마찬가지로 둘의 위계가 대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로’는 앞 행의 ‘함께’와 가족적 유사성<sup>15)</sup>을 지닌 시어로 범주화되며 그 의미가

15) 양병호, 앞의 책, 27면, 참조.

강조된다. 서로 이질적인 존재를 등가적인 위치에 놓은 점은 이 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생성한다. 인간과 동물의 교감과 조응이라는 정신가치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 두 대상이 모두 소외계층의 삶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더 심화될 수 있다. 자본화된 문명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방식이 ‘서로’이고 ‘함께’라는, 휴머니즘적 통찰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휴머니즘적 통찰은 나아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생태론적 깨달음이기도 하다.

요컨대 이 시는 개념적·문법적 전경과 배경의 전환을 통해 소외된 존재를 최종적인 전경으로 배치하면서 이면에 있는 범우주적 세계 질서를 피력하고 있는 시이다. 이 시가 그동안 ‘여백의 시’<sup>16)</sup>로 평가되어 온 것은 전경에 배치된 존재와 그 이면에 제시된 시적 세계관이 매우 크고 깊게 공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4. 결론

지금까지 김종삼 시에 나타난 현실인식을 고찰하고 그에 대응하는 시적자아의 의식을 인지시학의 방법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김종삼의 시가 언어 형식의 기법적 측면과 시의 의미 형성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인지시학의 개념을 원용해 김종삼의 시 세계를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본고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는 김종삼의 전기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의 시에 드러난 현실을 비극적인 것으로 보았다. 특히 「園丁」, 「風景」 등의 시가 현실을 비극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자아가 소외의식을 지녔음을 밝혔다. 이러한 인식의 형성에는 개념은유 [인생은 길이다]와 길도식이라는 영상도식이 기법적 특성이 관여하고 있었다. 또 자아의 소외의식이 주변지향성이라는 공간지향적 특징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한편 약자를 소재로 한 시에 주목하여 시적자아의 현실인식과 이에 대한

16) 황동규, 『잔상의 미학』,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244면.

의미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전경/배경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시의 언어형식적 특징을 살폈다. 현실에 대응하는 자아의 태도가 유사하고 절제된 언어형식을 가진 두 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民間人』에 드러난 현실은 비인간적인 것이었다. 시의 표면에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시공간과 사건이 배치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비극적인 민족사가 개념적으로 전경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극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파악했다. 『墨畫』는 소외계층의 삶이 형상화한 것으로 보았다. 힘들고 고단한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휴머니즘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종삼, 권명옥 편, 『김종삼 전집』, 나남출판, 2005.  
김종삼,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 2. 국내논저

- 강석경, 「문명의 배에서 침몰하는 토끼」,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김종도, 『인지문법의 디딤돌』, 박이정, 2002.  
김현, 「김종삼을 찾아서」,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서범석, 『비평의 빈자리와 존재현실』, 박문사, 2013.  
양병호, 『한국 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5.  
이경수, 「부정의 시학」,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황동규, 「잔상의 미학」,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 3. 국외논저

- Joanna Gavins · Gerard Steen(EDT), 『Cognitive Poetics in Practice』,  
Routledge, 2004.  
Elena Semino · Jonathan Culpeper(EDT), 『Cognitive Stylistics: Language  
and Cognition in Text Analysis』, John Benjamins, 2002.  
조지레이코프 · 마크존슨, 노양진 ·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박이정, 2006.  
피터 스톡웰, 이정화 · 서소아 역,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김종삼 시에 나타난 현실인식을 고찰하고 그에 대응하는 시적자아의 의식을 인지시학의 방법론을 통해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김종삼의 시가 언어형식의 기법적 측면과 시의 의미 형성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주목하였다. 김종삼 시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향이 의미 중심과 미적 성취 기법으로 분리되어 있었다면 인지시학을 통한 연구는 이를 통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한다.

김종삼의 시에 드러난 현실은 비극적인 것이다. 특히 「園丁」, 「風景」 등의 시에서 자아가 현실을 비극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소외의식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형성에는 개념은유 [인생은 길이다]와 길도식이라는 영상도식이 기법적 특성으로 관여하고 있다. 또 자아의 소외의식이 주변지향성이라는 공간지향적 특징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약자를 소재로 한 시에 주목하여 시적자아의 현실인식과 이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전경/배경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시의 언어형식적 특징이 형성되었다. 특히 현실에 대응하는 자아의 태도가 유사하고 절제된 언어형식을 가진 두 시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民間人」에 드러난 현실은 비인간적인 것이다. 시의 표면에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시공간과 사건이 배치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비극적인 민족사가 개념적으로 전경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비극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墨畫」는 소외계층의 삶이 형상화되어 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이지만 이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태도로 휴머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김종삼 시, 현실인식, 소외의식, 주변지향, 휴머니즘, 인지시학, 개념은유, 도식, 전경/배경, 프로파일링

【Abstracts】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reality of Kim jong-sam's poetry in Cognitive Poetics

Shin, hyunmi

In this study, I consider the perception of reality that is displayed in the Kim jong-sam's poetry. And, there is a purpose that take a look at the poetic consciousness of ego and its corresponding Through the methodology of cognitive poetics. In particular, I have noted that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to the formation of meaning and to the technical aspects of language form in Kim jong-sam's poetry. The trend of research of existing Kim jong-sam's poetry had been separated by the aesthetic achievement and centered on the meaning. In studies using cognitive poetics can be integrated to it.

Reality that appeared in poetry of Kim jong-sam are those tragic. Ego has been recognized as a tragic reality and it is possible to know that he have the sense of alienation From poetry, "The Gardener" and "landscape" in particular. The formation of this recognition are involved techniques characteristic as conceptual metaphor and image-scheme. It has been extended to the spatial features of ego consciousness alienation that peripheral directivity.

On the other hand, I focus on the poetry that was material to the weak.

I analyze the meaning to this reality and recognition of poetic ego. Here, the language formal feature of poetry is formed on the basis of concept of a figure/ground. In particular, to explore the focus on poetry two have the form of language that is abstinence attitude of self that corresponds to reality is similar. Reality which appeared in the “civilian” is something inhuman. On the surface of the poetry, and the incident space is located when the special concrete. However, in the other side, ethnographic tragic are figuration conceptually. Then,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at the tragedy is ongoing. The “The ink painting” is figuration to life of alienation hierarchy. It presents a humanism attitude to keep the life.

Key word : Kim jong-sam’s poetry, peripheral directivity, the perception of reality, cognitive poetics, the sense of alienation, conceptual metaphor, humanism, image-scheme, figure/ground, profiling

이 논문은 2014년 1월 13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1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2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